

'귀하신 봄' 낙지 육지목장서 키운다 ▶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주, 교전침해 3년새 25배 급증 ▶6

kwangju.co.kr

영화 '관상' 수익금 절반 기부 주필호 대표 ▶18

제19591호 1판 2013년 10월 14일 월요일 (음력 9월 10일)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을 1주일 앞둔 13일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피란 기를 하늘과 역사가 어우러진 봉화언덕을 오르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폐막 일주일 남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무더위·장마 딛고 관람객 400만 달성

성공박람회 자리매김...생태수도 순천 위상 높여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목표 관람객 400만명을 달성을하면서 성공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도시계획상 순천만의 원종지 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순천만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확실하게 부각시켰는데 의미가 크다. 관광객 증가와 지역 화훼농가의 소득 향상, 시민 참여의식 제고, 새로운 학생 체험학습장 등 지역경제에 미친 부가효과도 적지 않다. [\[관련기사 3면\]](#)

13일 정원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1분 순천시 연한동에 거주하는 박현자(여·65)씨가 '지구의 동문'으로 입장하면서 관람객 4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개장 176일째이자 폐막 8일을 앞둔 기록으

로 목표 관람객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성공박람회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목표 관람객 400만명 돌파는 박람회 개막전 입장권 할인예매 당시 목표인 80만명을 129% 초과 달성하면서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후 개장 26일만에 100만명을 돌파하고, 두 달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로 300만명을 넘어서서까지 93일이 소요되면서 목표 관람객 달성을 실패에 대한 우려가 없진 않았지만 9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관람 열기가 살아나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됐다.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향후 순천시의 조경·화훼 분야의 발전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의 확고한 기반구축, 학생들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순천시의 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조직위는 박람회장에 심어진 초화류 76종 26만245본이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람회로 인해 순천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고 학생 관람객 수만 40여만명에 달해 전국 최고의 수학여행지로 떠올랐다. 관람객 만족도 86.3%에 달해 내실 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

이밖에 하루 평균 23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2300여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박람회 돋기며 나서는 등 시민 참여의식 제고에도 기여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국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성공 박람회를 이

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원박람회장을 가꾸고 보존해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는 20일 폐막하는 정원박람회장을 정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동안 재개방하기로 했다. [\[광주포수기자 bungy@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원전 비중 20%선 유지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확대 정책 전면수정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원자력 발전 소 증설과 공급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전면 수정된다. 원전 비중을 20% 선에서 관리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위원장 김창섭 가천대 교수)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빠대로 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초안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우선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 비중이 26.4%(석탄 31%, LNG 28%)

이라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또 과도한 전기 의존도를 낮추고자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액화천연가스(LNG) 등 비(非)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전기 대체재 성격이 강한 LNG와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를 신설해 활용도를 낮추도록 한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워킹그룹은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자원개발률에서는 1차 계획 수준인 11%와 40%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본 틀을 잡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0~11월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폐막 일주일 남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무더위·장마 딛고 관람객 400만 달성

성공박람회 자리매김...생태수도 순천 위상 높여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목표 관람객 400만명을 달성을하면서 성공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도시계획상 순천만의 원종지 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순천만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확실하게 부각시켰는데 의미가 크다. 관광객 증가와 지역 화훼농가의 소득 향상, 시민 참여의식 제고, 새로운 학생 체험학습장 등 지역경제에 미친 부가효과도 적지 않다. [\[관련기사 3면\]](#)

13일 정원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1분 순천시 연한동에 거주하는 박현자(여·65)씨가 '지구의 동문'으로 입장하면서 관람객 4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개장 176일째이자 폐막 8일을 앞둔 기록으

로 목표 관람객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성공박람회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목표 관람객 400만명 돌파는 박람회 개막전 입장권 할인예매 당시 목표인 80만명을 129% 초과 달성하면서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후 개장 26일만에 100만명을 돌파하고, 두 달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로 300만명을 넘어서서까지 93일이 소요되면서 목표 관람객 달성을 실패에 대한 우려가 없진 않았지만 9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관람 열기가 살아나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됐다.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향후 순천시의 조경·화훼 분야의 발전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의 확고한 기반구축, 학생들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순천시의 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조직위는 박람회장에 심어진 초화류 76종 26만245본이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는 20일 폐막하는 정원박람회장을 정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동안 재개방하기로 했다. [\[광주포수기자 bungy@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원박람회장을 가꾸고 보존해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는 20일 폐막하는 정원박람회장을 정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동안 재개방하기로 했다. [\[광주포수기자 bungy@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주시 비정규직 비율 2.7%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

사실상 제로화 달성

전국 평균은 13.2%

광산구·동구청 우수

지난해 제로화 달성이 전국 246개 지방자치 단체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단체로 조사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비정규직은 전체 직원 2446명 중 66명으로 2.7%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비율로, 전국 자치단체 평균은 13.2%였다.

특히 민선 5기 들어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중인 광주시의 경우 이번 통계에 나타난 비정규직 66명도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 이 불가능한 일시적인 업무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들로, 사실상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 제로화를 달성한 상태다.

이어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자치했다.

이 밖에 전국 공기업 중에선 비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는 광주시 환경시설공단과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수시도시공사, 완도개발공사 등이 비정규직 비율 0%를 기록했다. 전국 13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평균비율은 14.7%였으며, 이 중 평균비율을 넘어선 공기업만 83곳이나 됐다.

백재현 의원은 "자체나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솔선수범을 해야만 정규직 전환이 민간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광주시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해 왔다는 것으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하나투어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여행의 계절 가을,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가세요!

캄보디아 전세기



인천출발 2013년 10월 30일~2014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AVP161-LJA] 암코르Wat 4일 499,000원~

◆한방 마사지+6대특식+특급호텔◆

출발일 : 10월 30일 ~ 2014년 2월 26일(매주 수요일)

*호텔 : 특급이나 호텔 또는 등급 부속

*특전 : 가드기자 NO TIP, 한방마사지 1시간 포함, 암코르 바이 또는 음료 제공, 6가지 특식제공

[AVP161-LJB] 암코르Wat 5일 599,000원~

◆보물찾기+이벤트+전선미니2시간+5성 하우드◆

출발일 : 10월 30일 ~ 2014년 2월 26일(매주 토요일)

*호텔 : 5성 하우드 부속

*특전 : 현선미니 2시간, 특별한 푸짐 제공, 무선 수신기제공, 물불찾기 이벤트, 6가지 특식제공

JDX와 함께하는 제27차 글로벌 골프챌린지투어



캄보디아 씨엠립 5일 부영 C.C.

출발일 11월 20일(목)
대회일 11월 30일(토)

054HO 센츄리 1,399,000원~

[AVG161131128OZ1/KE1]

054HO 셀프+골프 1,249,000원~

[AVG161131128OZ2/KE2]

할금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호텔 : 셀프호텔 센츄리 호텔(5성급)

※포함 및 특전사항

① 캄보디아 5성급 ANGKOR CENTURY HOTEL 투숙

② 골프 그린비, 기어드/시니 TIP, 11월 30일 대회당일 전동카트/캐디피, 팀 포함

③ 칼리다이나 도착비자발급비 \$20 포함

*불포함사항 : 대회당일 외 캐디피, 캐디피, 전동카, 클럽/슬즈렌탈, 기타 개인경비

상품정보

대회소개

*대회코스 : BOOYOUNG G.C.(舊. ANGKOR LAKE G.C.)

*대회행렬 및 방식 : 세미스강 or 풀샷/신스레리오 방식